

 국토교통부	<h1>보 도 자 료</h1>		
	배포일시	2021. 11. 29.(월) 총 5매(본문5)	
담당 부서	토지정책과	담 당 자	• 과장 김명준, 사무관 박형재, 주무관 김우중 • ☎ (044) 201-3399, 3406
	부동산산업과	담 당 자	• 과장 한정희, 사무관 박준수, 주무관 김보희 • ☎ (044) 201-3412, 3418
보 도 일 시		2021년 11월 30일(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1. 30.(화) 06:00 이후 보도 가능	

부동산서비스, 디지털 전환과 시장신뢰성 강화로 도약발판 마련

-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, 창업거점 마련 등 프롭테크 육성에 집중 -
- 소비자 보호와 기존업계와의 상생 등 안정적인 성장기반도 조성 -

□ 국토교통부(장관 노형욱)는 프롭테크* 등 부동산신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하여 11월 29일(월), 정부세종청사에서 학계·업계·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신산업 간담회**를 통해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이행계획 등을 논의하였다.

* 부동산(Property) 서비스에 기술(Tech)을 접목한 산업

** 국토연구원, 한국프롭테크포럼,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 전문가, 업계 등 10명 참석

□ (추진경위) 「부동산신산업 육성방안」은 4차 산업혁명 등 기술발전에 따라 프롭테크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,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 증가로 부동산 자문, 분양대행 등의 업역이 새로운 산업으로 인식됨에 따라, 새로운 부동산서비스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.

* 글로벌 프롭테크 투자규모 : ('16) 18.23억불 → ('19) 90.15억불

한국프롭테크 포럼 가입사 : ('18) 26개 → ('21) 284개, 1.7만명, 매출 3.5조원(추정)

- 정부는 '18.6월 「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」 시행에 이어 '20.12월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,
- 제도적 기반 구축에 이어 신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과제 도출을 위해 그동안 전문기관 연구 수행 및 업계관계자·전문가 등을 포함한 전담조직(TF) 운영, 관계기관(부동산원 등) 협의를 통해 「부동산신산업 육성방안」을 마련하였다.

□ (주요내용) 「부동산신산업 육성방안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부동산 데이터경제 기반 마련

- (부동산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) 프롭테크 서비스의 근간이 주로 부동산 정보에 기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업계 수요조사*를 통해 수요가 높은 정보를 지속적으로 생산하여 제공**할 계획이다.

* 도시계획정보, 건축물대장, 업무용 실거래가 등의 수요 多(프롭테크 85社 조사, '21.1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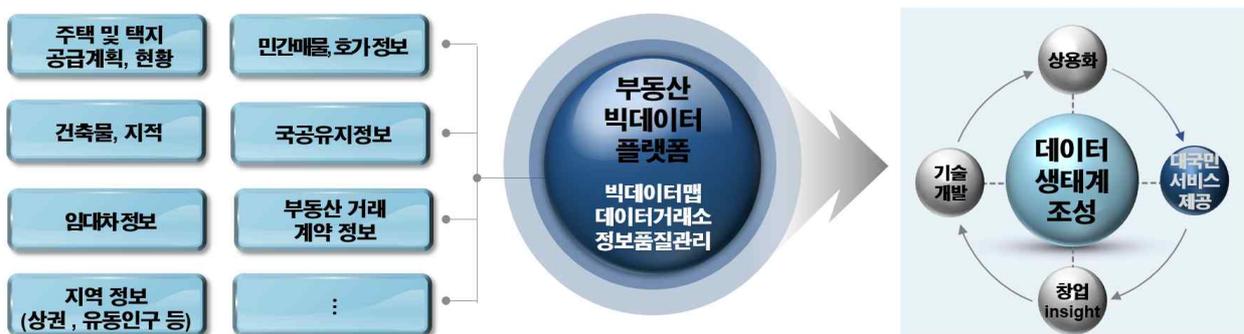
** 아파트 단지 식별(고유번호 부여)정보('21.12), 공장·창고·운수시설 실거래가('22) 등

- 또한, 데이터 활용 현황과 추가수요를 분석하여 공개 범위·일정 등을 포함한 공공데이터의 단계별 개방 전략을 수립한다.

- (빅데이터 플랫폼 구축) 다양한 기관에 산재한 정보와 민간이 수집한 정보 등을 효과적으로 수집·관리·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 시스템*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.

* 교통·금융·헬스케어 등 16개 분야에서 「빅데이터 플랫폼」을 구축·운영 중

【빅데이터 플랫폼 개념도】



-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시, 주택·토지 특성 및 거래 등의 정보가 통합 제공되며,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시각화한 빅데이터맵을 통해 알고 싶은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.
- 또한, 민간이 수집한 정보 거래를 위한 데이터거래소*를 운영하고, 데이터 품질관리를 통해 표준화되고 정확성이 높은 최신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.
 - * 공급자가 보유한 정보에 가격을 정해 시스템에 등록 → 수요자가 결제하고 자료취득
- (부동산전자계약 정착) 현재 사용률이 저조한 부동산 전자계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과의 계약, 공적관리가 필요한 계약 등부터 의무화를 추진한다.
 - * 공공주택사업자와 공공주택에 대한 계약, 이주대책·대토보상 등으로 체결하는 계약 등
- 민간의 자발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업계에서 활용하고 있는 부동산거래플랫폼*과 전자계약 시스템을 연계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, 전자계약 시 지원하는 중개보수 바우처도 확대**할 계획이다.
 - * (예시) 스마트하우스(임대관리시스템) 등 ** 지원대상(매도인·임대인 등 포함)·인원 확대

② 산업발전 기반 구축 및 활성화 지원

- (프롭테크 빌리지 조성) 인재채용, 교통 및 기관교류 등 경영환경이 우수한 곳에 프롭테크 창업기업 등의 업무 공간을 조성한다.
 - 우선, 기존에 서울 도심(부동산원 강남사옥)에서 제공하던 전용 사무 공간을 확장(100㎡→ 308㎡)하여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('21.12)하고, 향후 기업 입주수요 등을 고려하여 판교2밸리, 부산 등으로 확대를 검토한다.



【부동산원 강남사옥, 308㎡】
'21.12 리모델링 오픈



【판교2밸리 기업지원허브】
(案) 부동산원이 임대입주



【부동산원 부산동부사옥,】
(案) 보관실 인테리어작업 후 활용

- (산업 활성화 지원) 창업경진대회를 시장수요에 맞춰 개편*하고, 우수한 아이디어팀에 대한 후속교육**을 내실화하며, 우수사업자 인증 시 홍보와 공공사업 가점 등 혜택(인센티브)을 강화한다.

* 시장수요가 있는 「문제풀이형 과제」를 신설(22)하여 사업화가능성 높은 아이디어 발굴

** 창업캠프 팀 확대, 교육과정 엄선(엑셀러레이터협회, 벤처캐피탈협회의 맞춤교육 실시)

- 또한, 프롭테크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한국부동산원 등을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지원 사업을 운영하게 할 계획이다.

* 공공시범사업(예시: IT·GIS활용 보상시스템 등)을 실시하여 기업의 기술·경험 축적을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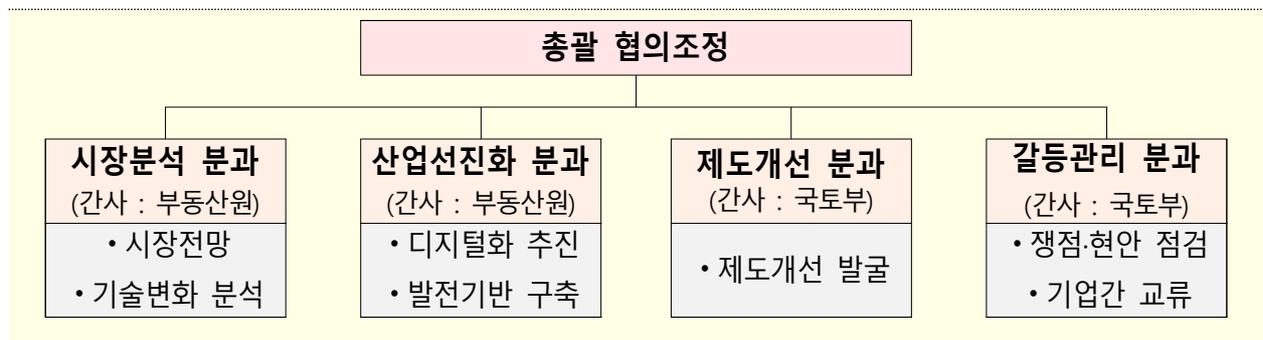
- (기존 산업과 신산업간의 상생) 부동산서비스산업 내 갈등 확산을 방지하고 상생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신산업과 기존산업 간 협의체를 개설·운영한다.

* 국토부-감정평가업계-프롭테크 간담회(10.27), 부동산개발협회-프롭테크포럼 공동주최 컨퍼런스(11.22) 등을 통해 갈등조정 및 상생·협력을 위한 전기 마련

- 협의체를 통해 기술 변화와 시장 전망 등을 업계와 공유하고, 프롭테크 및 기존사업자 간 동반자로서 대응방안도 모색한다.

* 기존 사업자 법정 교육 등에 프롭테크 활용 내용을 포함하고 기존 사업자의 디지털 플랫폼 및 IT 장비 활용 지원

【부동산서비스 라운드 체계(안)】



③ 소비자 보호 및 시장신뢰 구축

- (소비자 보호 및 보상체계 마련) 한편, 부동산신산업을 건설한 산업으로 육성, 발전시키기 위해 서비스산업의 근간이 되는 소비자 신뢰와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다.

- 부동산 중개대상물의 허위·과장 광고 등에 대해 민간기구를 통한 자율적인 시정(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(KISO))과 함께 공공차원*(광고재단 등)의 모니터링도 병행한다.

* ('20.8) 허위매물 적발업무 위탁(광고재단) → ('22) 적발업무 수행기관 확대(부동산원)

- 부동산매매업 등 관리가 필요한 업종의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을 마련하고, 소비자에 대한 일반적인 피해방지 원칙*도 마련한다.

* (금융부문) 투명성·책임성 확보 원칙을 담은 「전자금융거래법」 개정안 발의('20.11)

- (신규 서비스 제도화)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 증가로 새롭게 산업으로 인식되는 부동산자문업, 매매업, 분양대행업 등 3개 업종*을 법정화하고, 이를 통해 업체별 현황, 애로사항 및 지원 필요사항 등을 조사하여 정책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.

□ 국토교통부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“이번에 마련한 신산업 육성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프롭테크 등 부동산신산업이 국민께 양질의 부동산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.”고 밝히며,

- “프롭테크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새로운 산업과 기존 부동산업 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조정하고 발전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도 정부의 중요한 역할”이라고 강조했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박형재 사무관(☎ 044-201-3399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